



#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김정은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김일성·김정일동지 당의 존엄과  
위업을 만방에 펼치며 백승의  
역사만을 아로새겨갈 것이다.』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 아래 조  
선로동당기 세차게 휘날린다.

주체조선의 높은 존엄의 상징이고  
승리의 기적인 조선로동당기!

그 성스러운 기록이 내 조국의 하  
늘 아래 높이 휘날린 때로부터 얼마나  
나 정이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역사가  
장엄히 흐르게 되었거나.

정명 조선로동당기의 세찬 퍼티임  
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지지와 운명  
에서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이  
땅에서는 인민의 꿈과 희망이 꽂쳐

나고 영원한 승리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결심하면 무엇이나 다 이루었고 봄  
우면 반드시 승리한 그 위대한 역사

에 혁명을 만다면 아마도 『조선로동

당이 있기에!』일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조선로동당기 있기에 이 조  
선은 무궁강해하다!

바로 이것이 당창건기념일을 맞이  
한 이 아침 창공높이 휘날리는붉은

당기를 경건히 우러르며 우리 인민

온 세상에 소리높이 터치는 뜨거

운 격정의 웨침이다.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수령의

당이며 당건설에서 기본은 수령의  
사상과 명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그  
계승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당이 혁명  
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조  
직자, 활동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원  
만히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은

역사가 보여준 철리이다.

줄기차고 억울한 활도의 힘으로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조선

로동당.

하다면 우리 당이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활동자로서의

불폐의 위력을 넘김없이 펼쳐나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은 파악 무었

이면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역사와 더 들어

이야기하며 하지 않는다.

하나의 자고마한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집다는 말이 있듯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걸어온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정  
직한 진로를 통해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명백히 이야기할수

있다.

수령의 사상과 명도의 계승분자는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

한 문제이며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

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이 역사의 철리를 굳게 세겨안으

시었기에 우리 당령도사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행복에 빛나는 계승의 날과 함께 장령히

아로새겨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

4월 혁사적인 조선로동

당 제4차 대표자회를 앞

둔 어느날이었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회장을 통하여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

리실을 가지고 자기 수령

을 말들이 모시고 수령

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

하기 위하여 어떻게 면

쳐나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

시면서 이렇게 말씀하

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역사  
당의 창건자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역사

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행복에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표명하는 원수님에 대한 존

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빛내주는 위대한 당을 따라 끝까지 한길을 가리

## 열 백 번을 태여나 다시 산 대도

생각도 깊은 10월이다. 마치와 낫파 붓 아로새겨진 성스러운 붉은 당기를 승압히 우러르는 청민의 가슴마다에 드겁게 물어드는 고마움은 이땅 어디서나 감사의 노래되어 울려펴진다.

꽃을 세라 추울세라 친누비 대막아주며 천만운명 품에 앙아 보살펴온 어머니, 진정 그 위대한 어머니의 품은 얼마나 뜨겁고 차에로웠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평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혼신의 당, 험한 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현지지파가 타취와도 인민을 위한 전적을 통해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했 것입니다.』

두해전 9월,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2001년 전투는 주요 전역에 전개되었던 주력부대들을 함복도 북부전역 복구전선으로 굽파하고 전투, 전진, 천민이 혼력을 집중함에 대한 우리 당의 중대조치는 단사람을 울려였다.

뜻밖에도 들이닥친 엄혹한 자연재해로 보금자리를 잃고서도 굴착 없는 복구전투를 벌리고 있던 북부지구 인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려명거리왕공의 환희보다도 제해지역 인민들의 새침들이 소식이 몇 천배로 더 귀중하다는 호소문의 구구질구질을 눈물속에 읽으면서 그들은 어머니당의 위대한 평사부의 의지를 다시금 실정에 새기었다.

억악금을 쏟아붓고 나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땀땀하던 끈풀이 세 쳐지 않았던 그날 우리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적승기를 맞이한 피해지역 인민들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서빨리 가보라고 자기들을 떠밀어 이곳으로 보내 주셨다고,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시태는 없었고 인민의 불행을 가서주는 일군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순간 아득한 힘으로 사람들을 순간 너나없이 목이 깍깍 매어 흐느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철식을 끊고계시는데 우리는 한끼도 견느지 않고 밭을 놓으니 이보다 더 큰 죄스러움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며

눈물을 쏟은 것은 무산군의 려선명에 찾아오시여 점심식사마저 잊으시고 인민들이 살게 될 새 집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정말 가슴이 뿐만 아니라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려해하시며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위기로 전까지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락시키는것이 기본이라고, 시간이 없다고, 살림집부터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 우리 원수님의 따뜻한 말씀을 가슴벅차게 세겨보았다.

그리고 혈육보다, 자기 목숨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새 집에 비를 풍양고운 데종에 까지 받아안았다. 북부전역으로 분초를 다듬어 전선행렬차들이 떨어오면 그 각각 북번방이 이를 『세상에 부끄럼이 어려』의 노래부르며 총동원으로 아영의 길을 떠났다.

진정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시태는 없었고 인민의 불행을 가서주는 일군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순간 아득한 힘으로 사람들을 순간 너나없이 목이 깍깍 매어 흐느꼈다.

한점 티도 없는 인민의 이 진실은 과연 어디에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인가.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 나라 최북단에 살든, 이를 없는 삶 한글에서 살든 우리 사는 짐은 언제나 탐증상프라와 엇갈아

있다는 믿음, 당의 손길만 꼭 잡으면 행복도 오고 희망도 오고 두번다시 태어날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이 땅우에 세상에 다시 없을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펼쳐였다.

병든 자식, 상처임은 자식 맞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풀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품속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사람들은 그 얼마이며 조국파 인민을 위한 보답의 삶을 같았기 때문이다.

저 하늘에 눈부신 태양이 있듯이 땅우엔 온데론 태양이 있어라, 이것은 결코 노래의 한구절이 아니다.

그 뜻을 떠나선 한시도 살수 없고 그 품속에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임을 삶의 진리로 제독한 원군이면 한없이 빛나는 행복과 긍지에 넘쳐 터치는 심장의 토로이다.

조선로동당기 날리는 10월의 하늘과 신념의 목소리 더 높이 데아아아!

열백번을 태여나 다시 산대도 그 품에만 우리 살리라!

『부모를과 친구들도 재생의 길을 걸으려는 우리를 밀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입니다.』

어머니당의 품속에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해마다 10월이 오면 류다를 감싸 속에 걸어온 인생을 돌이켜 보곤 한다.

그렇 때마다 주체 104(2015)년 2월의 하루를 잊을 수 없다.

바로 이 날과 더불어 블리스터운 파리를 안고 있는 청년들로 무어진 우리 경영조성년들격에 대해 하여 청년수당에 걸어온 인생을 돌이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천성·성선원자연호흡수술수정진정장에는 영광의 성스러운 이름을 달고 청년들 격대기념이 나듯이 되었다.

그날 나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을 묵여 청년들격대에 기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더 큰 사랑이 우리를 기다려고 있은줄은 미처 알수 없었다.

이튿날에 어느 날, 자정도 려 넘은 때 경영조성년들격대가 생겨 나게 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해하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며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애국심을 데우기 위주로 잘 보살펴주며 헌금을 전해온 것을 듣자 뜻을 기울여 주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청년들의 소중한 애국심에 험하고보니 우리 당은 천군만마로 엄운웃음을 터트렸을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넘으면 우린 못산다고.

천성형년탄광길영조성년

물하는데 과연 용서를 받을수 있을까.)

이것은 결코 나만의 심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조직에서는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하고 풍력대에 편안하겠다는 우리의 청원을 받았을뿐아무리 부모나 친구들보다 더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천성·성선원자연호흡수술수정진정장에는 영광의 성스러운 이름을 달고 청년들 격대기념이 나듯이 되었다.

그날 나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을 묵여 청년들격대에 기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었다.

이렇듯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걸음걸을 성장해온 우리 경영조성년들격대이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알고 우리들은 무리를 풀어내면서 비록 광장을 밟고 감량을 체내야 하는 어렵고 간고한 속에서도 위훈과 혁신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정녕 당의 크나큰 믿음과 함께 온몸을 헌신하면서도 비록 광장을 밟고 한 속에서 위험과 혁신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하지만 더 큰 사랑이 우리를 기다려고 있은줄은 미처 알수 없었다.

이제는 2월 어느 날, 자정도 려 넘은 때 경영조성년들격대가 생겨 나게 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해하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며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애국심을 데우기 위주로 잘 보살펴주며 헌금을 전해온 것을 듣자 뜻을 기울여 주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청년들의 소중한 애국심에 험하고보니 우리 당은 천군만마로 엄운웃음을 터트렸을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넘으면 우린 못산다고.

천성형년탄광길영조성년

그 말씀을 빙어안으며 우리 청년들격대원들모두는 감격에 북받쳐 울고 또 울었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위해 주는 어머니의 디딤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주는 당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얼마후 우리 경영조성년들격대원들은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이렇듯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걸음걸을 성장해온 우리 경영조성년들격대이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알고 우리들은 무리를 풀어내면서 비록 광장을 밟고 감량을 체내야 하는 어렵고 간고한 속에서 위험과 혁신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정녕 당의 크나큰 믿음과 함께 온몸을 헌신하면서도 비록 광장을 밟고 한 속에서 위험과 혁신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하지만 더 큰 사랑이 우리를 기다려고 있은줄은 미처 알수 없었다.

이제는 2월 어느 날, 자정도 려 넘은 때 경영조성년들격대가 생겨 나게 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해하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며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애국심을 데우기 위주로 잘 보살펴주며 헌금을 전해온 것을 듣자 뜻을 기울여 주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청년들의 소중한 애국심에 험하고보니 우리 당은 천군만마로 엄운웃음을 터트렸을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넘으면 우린 못산다고.

천성형년탄광길영조성년

그리고 갖추어놓고 맞이할 준비를 서두른다.

그리고 해당 지역 저로소의 당당의 사들과 디아소의 보육원들도 그들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니 새쌍둥이, 비쌍둥이들을 위해 기울이는 우리 당의 사랑의 힘은 파열 어린 어린이에게 있다.

어찌 새쌍둥이, 비쌍둥이를 놓고 우리들은 냇내 기뻐하시며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리고 새쌍둥이, 비쌍둥이에게는 원수님께서는 냇내 기뻐하시는 청년수당에서 이들의 힘을 터트렸을 것이다.

</



#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토의 찬가

조선로동당창건 73돐을 맞는 내 조국의 주론 하늘가에 우러리 성스러운 당기기 멀끔 위黾입니다. 역사의 풍물속에서도 진함을 모르고 힘차게 나듯은 주제의 붉은 당기, 그 세찬 펄럭임은 승리와 영광만을 끌어온 조선로동당의 불체의 상정으로 되고있다.

영국신문 『란카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조선은 지난 세기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확장되고 제국주의 반란과 국부전에 속에서도 끝은 기를 불고 반제주권력을 품었지만 전진시켰다. 조선혁명은 모든 시민과 난리를 끊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비정은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시었으며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명도가 있기 때문이다.』

들이 보면 우리 당은 조성된 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자그마한 조선상호도 없이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걸로 만들어낸다. 나라의 자주주권수호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전투에는 언제나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이 펼쳐졌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당을 불멸의 땅으로 강화발전시켜온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명도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강위력을 한 몸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권력을 위한 투쟁을 험하게 행도되었기 때문에 인민을 둘러싸울 기적과 면역을 얻아갈 수 있다.

## 《조선로동당의 영도자》

###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특집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즐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기간에 출판하였다.

에 미리아인 신문 『포춘』은 정해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전문을 보시고 그이에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고자에서는 대체 소개하는 글을 『위인에 대한 빠른 회고』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우루파이 씨, 에스36짜이오 씬네나오방송 인터내트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투쟁의

10월의 명절들에 즐음하여

여러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보신 조선로동당의 영도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조선인민의 정성과 열정으로

10월 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희감상회에서는 『조선로동당기발』을 비롯한 우리 나라 출판보도에서 조선로동당의 영도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10월 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조선인민의 정성과 열정으로

10월 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